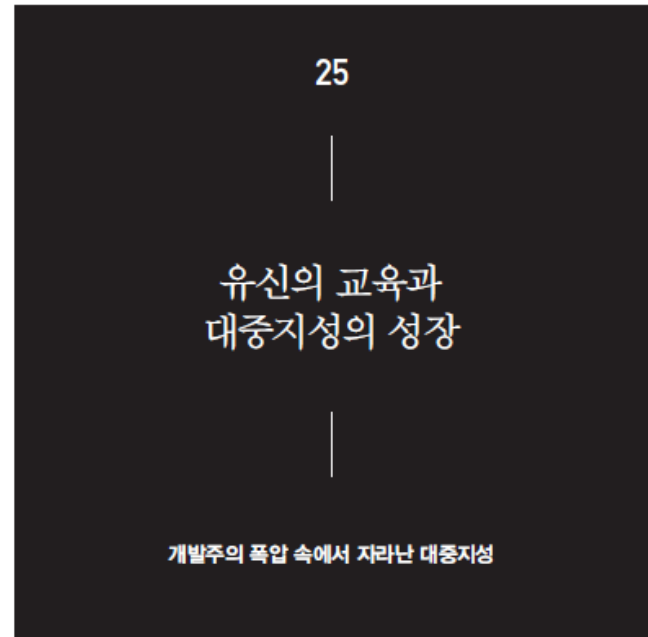


상황이 펼쳐졌지만, 기실 사회의 심층에서는 '아노미'적 상황이 존재했음을 재확인해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재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성장이든 예기치 않은 재난이든 사람들이 자살하기 쉽다"라며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는 "위기(교비)" 때문이라 했다. 유신 시대에는 자살률뿐 아니라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률도 1960년대보다 훨씬 높았다. 경제 문제 때문이든 가족이나 농촌 전통사회의 해체 때문이든 유신 시대는 일종의 위기 국면이자 인간적 삶의 '비상 상태'였던 것이다.



유신의 모더니즘과 광속도 개발은 새마을노래가 주절거리는 것처럼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는 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시기를 좀 넓게 잡아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개발 연대에서 가장 의미 깊은 개발과 그 큰 과실은 '인간개발'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 그대로 세계 수준의 인적자원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문화적 수준과 지적 깊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근대가 개막된 이래 누적되어온 ‘포텐(잠재력)’이 터졌다고 해야 할까? 대중은 적어도 이 면에서는 지극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동참했다(물론 딸들을 상급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못나고 가난한 가부장이 여전히 많긴 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는 온갖 제도적 불합리와 방해나 모순을 뚫고,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이뤄진 과정이었다. 배는 굶어도 공부는 해야 한다는 그 열의와 욕망은 새로운 버전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필연적이고도 부수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뭘 바라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니피양과 시니피아가 혼연일체가 된 채로, 신앙처럼 불꽃처럼, 모든 계층과 남녀 사이에서 타올랐다고 하는 편이 더 사실에 맞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체 특별 학급에 다니거나 검정고시 전선에 서 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과 노동자·농민과 그 아들딸들의 열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학벌사회와 재수생 문제

1960~1980년대의 고도성장기 동안 한국인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중학 교육의 ‘의무교육화’가 외쳐지고 고교 교육도 “국민교육화되어가고 있다. 1978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전국 총 88만 7000여 명 중 89퍼센트

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중학교 무시험전형제가 영향을 끼쳤고 교육에 대한 지역민과 영세민층의 관심이 이처럼 진학률을 높인 것이었다.’ 박정희 통치가 시작된 1961년 고교 진학률은 전국 평균 41퍼센트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0년에는 63퍼센트에 달했고, 다시 10년이 지난 1980년에는 82.6퍼센트에 이르렀다. 10년간 10퍼센트씩 높아진 셈이다.²

배움에 대한 위대한 한국적 열정은 물론 유신 시대에도 부작용을 낳았다. 1970년대 내내 ‘재수생 문제’가 심각했는데, 대학 입시에 낙방한 재수생뿐만 아니라 고교 입시나 중학 입시에서 낙방한 청소년들도 문제였다. 서울 광화문(공평동과 내수동) 뒷길은 세칭 ‘재수로’라 불릴 정도로 대입 학원이 밀집된 지역이었다. 이 동네 대포집과 백죽 집에는 대낮부터 남녀 재수생들이 담배를 꼬니물고 시시덕거리며 청춘의 ‘고민’을 불태웠으며 이 동네는 당구장은 물론 카바레까지 재수생들 덕에 경기가 좋았다 한다.

중학 입학 무시험제도와 고교 평준화 및 학군제도가 도입되면서 1970년대 중반 중입·고입 재수생 문제가 차츰 해소되었으나 1976학년도 대입에서 25만 3000여 명의 응시자 중 무려 16만 명가량의 ‘불합격자’가 발생하자 다시 재수생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했다. 특히 박정희가 1월 문교부 업무 순시 중 학원이 주변에 유흥장이 많아 걱정된 다면서, ‘올해 내로’ ‘재수생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하는 바람에 1976년 내내 한국 사회 전체가 ‘재수생 대책’을 고민하고 논쟁했다. 가뜰이나 서러운 삼수생에게 대입 전형 과정에 불이익을 줘 삼수생 수를 줄이자



1970년대 종로 학원가를 가득 메운 학생들.

거나 재수생을 졸업한 고교에 등록하게 해서 진학 및 생활지도를 받게 하자는 황당한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 시절 비좁은 대학문 앞에서 와글거리며 서 있었던 것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였던 것이다. 결국은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택됐다. 다시 말해 대학을 더 세우고 인가해 진학률을 높이

는 방안이 실행된 것이다. 한국 사회를 확 바뀌놓게 되는 이 대책은 1978년 10월에 나왔다. 문교부는 당시 33.1퍼센트였던 대학 진학률을 53.5퍼센트선까지 끌어올려 대학 교육을 '보편화'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1979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을 무려 4만 9,490명이나 증원하고 1980년에도 5만~7만 명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2년 만에 대학생 수를 10만 명이나 한꺼번에 늘린다는 이 계획은 군사독재가 아니면 집행하기 어려운 놀라운 '밀어붙이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증원 계획은 주로 지방 대학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지방 대학에는 당장 교원과 교실이 부족했다.

문교부는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서울대 등의 대학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으며 대학교수 연구비를 20억 원 증액하고 연간 200명의 교수를 해외에 파견할 계획도 세웠다. 비록 갑자기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대학교수의 '리츠 시절'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튼 이 시책으로 많은 대학교가 새로 태어나고 재편·승격됐다. 경기도에 인천공과대학, 전북에 우석여자대학, 부산 사상공단 내에 인제의과대학이 신설됐고, 서울 소재 대학 중 '경영 능력이 우수한 대학에 지방 분교를 허가'하여, 한양대는 만원공업단지, 중앙대는 안성에, 동국대는 경주에 각각 분교를 설립하게 됐다. 또 기존의 초급대학제도를 없애고 6개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경동공업전문학교는 동의대학으로, 안동초대는 안동대학, 목포초대는 목포대학으로, 마산초대는 마산대학으로, 군산여자초대는 군산대학으로, 강릉초대는 강릉



1976년 대학 신입생의 수강신청 풍경. 등록과 수강신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이 직접 학생회관이나 학과 사무실에서 직접 카드를 써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1976년 당시 등록금은 사립대학 20만 원대, 국립대학 15만 원 내외였다. 이러한 풍경은 학교 외부에서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해진 1984년까지 계속되었다.

대학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야간 정원도 크게 확대했다. 제주대, 원광대, 경남대, 관동대, 울산공대가 증원했고 또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기초과학 및 외국어 학과 등에서 1만 7860명을 증원했다. 수도여사대와 청주여사대는 각각 세종대학과 청주사대로 바뀌어 남녀공학이 됐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는 실질적으로는 이때 시작된 셈이다.

독서운동과 '지하 독서'

한편 1960~1970년대에는 출판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고 '국민독서운동'도 벌어졌다. 기독교를 믿지는 운동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皆)가 독서인이 되자는 전국 규모의 책 읽기(讀) 운동이다. 원래 민간에서 시작된 마을문고운동, 자유교양운동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변화'함으로써 독서운동에 학생과 지역민이 강제로 '동원'되기도 했다. 특히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대통령기정발 전국자유교양대회'는 거대한 규모였다. 절정에 달한 1974년에는 전국에서 8900여 개교, 즉 전국 학교의 96퍼센트, 학생의 90퍼센트가 대회에 참가했다 한다.

정권도 관심이 많았다. 제1회 자유교양대회 시상식부터 정일권 국무총리가 치사를 했을 뿐 아니라 매해 문교부 장관이나 국회 문공위원장 등이 대회에서 치사를 했다. '육 여사'께서도 1970년부터 해마다 상위 임상자와 학부모를 청와대로 불러 격려했다. 『자유교양』지에 따르면 1971년 '육 여사'께서는 수상자와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큰딸 근혜 양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을 느끼셨다고 어머니로서의 체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그때의 표정은 '퍼스트·레이디'라는 말에서 풍겨나는 위엄보다는 자애와 우애로써 가득 차 있었다" 한다. 제목에서 보듯 이 좋은 취지의 운동은 다분히 '유신스럽게' 진행됐다. 청룡기나 황금사자기 또는 전국체전 같은 군부독재 시대의 스포츠대회를 연상시키는 '대통

경기쟁탈전국자유교양대회'에는 전국 각 시도 '선수들이' 학교별로, 초·중·고·대학생들이 각각 학년별로 참가했다. 득점이 높은 학생에게 금·은·동 메달을 수여했고 학교별로 탄 메달 수를 합계하여 시상하고, 시도별 참가 학교의 점수와 독후감 제출자 수를 합산하여 시도별 상도 주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고전 읽기는커녕 예상문제 풀이와 선수 합숙 훈련 같은 군사독재식 동원과 성과주의가 이 독서운동을 오염시켰다.³

그러나 이런 관변 독서운동이 아니라도 1970년대 대중의 독서력과 독서인구는 확대·확장 일로에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지하 독서인구'가 생겨났다. 영부인 육영수가 자이니치 청년 문세광의 총에 맞던 바로 그날,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오가는, 지하철 1호선의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되었다. 연이어 지하철 1호선의 다른 구간도 개통되어 근대 대중교통과 도시사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1976년 8월 13일자 『경향신문』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2주년을 맞아 지하철이 바꾼 일상 풍속을 명랑한 어조로 소개했다. 종로 등 지하철역 주변 상권이 커지고 지하철역이 새로운 데이트와 약속 장소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다른 대중교통 공간보다 공중도덕이 잘 지켜져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지하철은 버스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조명도 밝아 책뿐 아니라 일간지나 잡지 읽기에도 좋아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때면 으레 포켓북이나 읽을거리를 소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지하 독서'의 미풍은 2000년대 말 잡스와 갤럭시의 전면 내습을 받아 전면 퇴락하기 전까지 근 40년간 한국 독서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민중주의의 지적·예술적 진전

박정희와 그 체제가 점점 이성을 잃어갈 때 이처럼 새로운 대중지성과 민중주의의 지적이고 윤리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박정희의 폭압과 개발주의는 대중지성과 민중주의의 성장과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변증법적 관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1975년 이후 소위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검열과 반공의 칼을 휘두르며 더욱 날뛰었지만, 함석헌·리영희를 위시한 몇몇 저자의 책들이 청년·대학생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유신체제에 대한 이반의 힘도 점차 커졌다.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두 눈을 파랗게 뜨는 이야기를 담은 황석영이나 조세희의 소설도 잘 팔렸다. 대학생들은 단지 '쪽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순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도 날카로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는 야학운동과 노동자들을 향한 지식인의 투신이 시작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의 한 주역이었던 윤상원·박기순 등의 '들불야학'이나 최근 영화로 만들어져 새롭게 조명된 부산의 '부림' 사건 주역들도 이때부터 독서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태일의